SF 영화,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의 거울

공상과학, 영어로는 SF(Science fiction) 장르는 수많은 영화 장르 중에서도 단연 가장 사랑받는 장르 중 하나이다. 제임스 카메론의 “*The Avatar* (2009)”는 8년째 전 세계 역대 흥행수익 성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 역대 흥행수익 성적 10위 안에 SF 장르 영화는 자그마치 일곱 작품이나 된다.[[1]](#footnote-1) 감독의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와 화려한 그래픽은 관객들을 설득하고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SF는 Fiction, 즉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SF에서 제시하는 미래가 꼭 현실과 동떨어진 것만 것 아니다. SF의 선구자인 쥘 베른은 그의 소설에서 달 여행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잠수함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영화 “*Minority Report (2002)*”에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허공에 손짓을 하며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은 이제 개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SF가 과학 기술 발전의 길라잡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SF는 단순한 상상력을 넘어서, 문명 발전의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SF가 갖는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왜 학교에서 SF를 가르치지 않는가? 역사는 가르치면서 왜 미래학 과목은 없는가? 로마제국이나 봉건시대를 탐구하듯이 미래의 가능성과 개연성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 SF를 문학작품이 아니라 일종의 미래 사회학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예측의 습관을 길러내는 정신 확장력으로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어린이들은 SF를 읽으면서 우주선과 타임머신에 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어른이 되어 부딪치게 될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윤리적 문제의 정글 속을 상상력을 발휘해 탐험해 보도록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F는 ‘미래의 나’를 위해 읽혀져야만 한다.”[[2]](#footnote-2)

실제로 SF 소설과 영화는 최신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담는다. 그 때문에 SF는 분명한 시대성을 가지며, 과학을 통해 사회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SF 장르 영화는 사회와 과학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산물이다. SF 영화를 통해 감독이 드러내는 과학에 대한 견해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면 SF영화는 시대에 따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주된 정서와 관심사를 투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전 세계는 세계 2차 대전을 끝낸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전쟁 후에도 한참 동안 체제 경쟁의 줄다리기를 이어 나갔다.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되리라는 것을 서로가 인지한 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은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역사학자 브라이언 비지니는 당시의 SF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50년대의 할리우드 SF 영화는 냉전 시대 미국의 두려움과 소망을 정확하게 담아내며 미국의 정치 구도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대립, 토론을 반영했다.”[[3]](#footnote-3)

“*The Thing from Another World* (1951)”이라는 작품에는 강력한 외계인이 등장한다. 이 외계인은 말이 통하지 않으며, 인간의 피를 마시고, 체질적으로 다르다. 무시무시하고 적대적인 외계인은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졌던 반공주의적 태도가 1950년대 미국 SF 영화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유의할 부분은 영화에 등장하는 캐링턴 박사라는 인물이다. 노벨상 수상자로 등장하는 캐링턴 박사는 적대적인 외계인이 인간보다 우월하며,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스로의 지적 우월감에 도취한 채로 주인공인 헨드릭 대위가 외계인을 상대하는데 사사건건 방해하며 대립한다. 캐링턴 박사는 영화 마지막에 “나는 당신의 편이오” 하며 외계인에게 다가가다가 죽음을 맞는다. 캐링턴 박사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자는 급진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를 악당처럼 그렸다는 것은 당시 미국 사회는 보수적이었으며 이런 진보파를 인정할 수 없었음을 드러낸다.

캐링턴 박사가 과학자인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캐링턴 박사가 “지식은 생명보다 중요하오. 우리는 원자도 쪼갤 수 있다고!”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인물 중 하나는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지”라며 그를 비웃는다. 주인공 헨드릭 대위는 그를 ‘골칫덩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군인은 영웅, 과학자는 악당. 1950년대 미국이 바라본 과학자는 무책임한 냉혈한이었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괴수(怪獸, kaiju)물이라는 SF 소장르가 흥행했다. “*고질라* (1954)”로 대표되는 괴수물은 거대한 괴수가 등장하여 도시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수는 강력하고 거대하며, 막을 수 없는 재앙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영화에서 재앙은 실제로 일어나며, 사람들은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에 대응하며 괴수와 맞선다. 일본에서 괴수물이 흥행한 것은 필연적이다. 괴수는 원자폭탄에 대한 직접적인 메타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괴수물에서 괴수는 방사능이나 무책임한 과학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다.) 실제로 폭발의 피해를 받으며 그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일본에서 SF 영화는 그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희망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다.

같은 시대, 다른 상황에 있었던 두 나라의 SF 영화가 상이한 주제의식을 갖는 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공통으로 두 나라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이 심어준 공포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SF 장르는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

미국에서 변화의 신호탄은 냉전이 전개되면서 시작된 우주 경쟁이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 역시 시선을 우주로 돌린다. 이후 1969년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게 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나라의 영웅으로 추대받는다. 이를 반영하듯 1966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타 트렉 (Star Trek)”* TV 시리즈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질병과 사회 혼란을 극복한 미래 유토피아를 그리며 우주를 누비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일본에서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되자 “*우주 소년 아톰* (1963)”, “*마징가 Z* (1972)” 같은 로봇을 소재로 한 희망적인 작품들이 등장하며 지금의 일본이 로봇 강국이 되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SF 작품들이 연달아 발표된다.

이후에도 SF 영화의 소재는 그 당시 세계가 주목했던 과학 기술들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1997년, 유전 공학이 가져다줄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던 “*GATTACA* (1997)”가 개봉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가까운 최근만 보더라도 과학 뉴스의 큰 키워드였던 인공 지능과 관련된 영화가 “*Her* (2013)”, “*Transcendence* (2014)”, “*Ex Machina* (2015)” 등 연달아 나오고 있다. SF 영화가 대중의 관심사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SF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라고 표현하지만, SF 영화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과거 사회의 정서를 느껴볼 수도 있고, 현대의 대중이 과학에 대해 관심을 두는 트렌드를 알 수도 있다. 말하자면, SF는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와 과학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SF 영화를 본다면, 단순한 재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 참고 문헌

[논문]

Bryan Vizzini (2009), “Cold War Fears, Cold War Passions: Conservatives and Liberals Square Off in 1950s Science Fiction”, in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J.P.Telotte (2001), *Science Fiction Film,*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ith M. Johnston (2011), *Science Fiction Film: A Critical Introduction,* Bloomsbury Academics.

Peter Biskind (2004), “Look To the Skies!”, in Sean Redmond, *Liquid Metal: the Science Fiction Film Reader*, Wallflower Press

[단행본]

앨빈 토플러(1989) 『미래 쇼크』

[사이트]

박스오피스 통계 자료 <http://www.boxofficemojo.com/alltime/>

사이버 문학광장 글틴 칼럼 <http://teen.munjang.or.kr/archives/1997>

1. <http://www.boxofficemojo.com/alltime/> [↑](#footnote-ref-1)
2. 앨빈 토플러(1989) 『미래 쇼크』, 한국경제신문사, 416면 [↑](#footnote-ref-2)
3. Bryan Vizzini (2009), “Cold War Fears, Cold War Passions: Conservatives and Liberals Square Off in 1950s Science Fiction”, in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26: 28-29, p.38 [↑](#footnote-ref-3)